aT, 인도서 대규모 K-푸드 행사… 신시장 진출 전략 본격화

'델리 K-푸드 유니버스' 운영
만두·호떡 등 다양한 한식 선봬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 확인"



인도 뉴델리 소재의 한 대형쇼핑몰에 조성된 체험형 복합 팝업스토어 '2026 델리 K-푸드 유니버스' /aT

K-푸드의 신시장 진출 확대 전략·구상이 현지에서의 본격 실행에 돌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인도와 중동, 중남미 지역을 3대 수출 신시장으로 꼽고 있다. 이달엔 인구대국 인도에서 열흘간의 대규모 행사를 기획·개최했다.

aT는 지난 13~22일(현지시간) 기간 인도 뉴델리 소재 대형쇼핑몰인 퍼시픽몰 타고르가든에서 체험형 복합 팝업스토어 '2026 델리 K-푸드 유니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방문객 총 8만3000여 명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신시장인 인도 공략을 위해 위해 2024년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인도 최대 명절인 디왈리축제 직후 1000㎡(302평) 규모의 야외광장을 활용했다. K-푸드의 시식·판매부터 한복, 전통놀이 등 한국문화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한옥과 청사초롱을 활용해 한국의 미를 살린 행사장은 ▲판매마켓존 ▲K-주막(식음료 체험존) ▲마켓테스트존 ▲K-컬처존 ▲쿠킹존 ▲플레이존 ▲상설무대 등으로 구성됐다. 판매마켓존에는 한국 식품을 수입하는 인도 현지 수입·유통업체 5개사가 입점해 라면, 떡볶이, 과자,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했다. K-주막에서는 막걸리와 함께 닭강정, 김치전, 만두, 호떡 등 다양한 한식을 선보였다.

aT는 채식 인구 비중이 높은 인도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김밥·떡볶이·잡채·김치볶음밥 등을 일반메뉴와 비건(완전채식) 메뉴로 나눠 조리 시연 및 무료 시식을 진행했다. 방문객이 구매한 라면을 직접 끓여 먹는 체험도 큰 호응을 얻었다.

마켓테스트존에서는 수출전략형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 중인 국내 5개 기업이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들 기업은 김치분말, 차류, 음료 등 5개 제품을 전시했다. aT는 향후 소비자 설문 결과를 참조해, 이들 기업들과 인도 진출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또 K-컬처존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해 한국 음식 관광 콘텐츠와 김,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했다. 한국식 메이크업과 개인별 적합 색상 진단, 딱지치기·공기놀이·제기차기 등 문화 체험도 인기를 끌었다.

상설무대에서는 매운맛 도전, 김밥 말기 대결, K-뷰티 강연, 쿠킹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K-팝 커버 댄스 대회'와 복면 노래 경연대회 'K-푸드 마스크 싱어'에는 각각 59개 팀과 19명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다. 태권도 시범과 인도 전통무용, K-팝 아이돌 DIVA-X의 단독 콘서트도 관심을 끌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인구 14억6000만의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인도에서 K-푸드와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인도시장 진출과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인도시장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라면(2339만 달러·+53.9%)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1.2% 늘어난 6818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기후부, 제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높인다

2035 제주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

탄소중립 이행안·추진전략 공유
내달 소비자 참여형 요금제 도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제주시 헤리티크 제주에서 열린 '2035 제주 탄소중립 섬'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25% 수준인 제주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RE100' 청사진을 내놨다. 발전 설비 확충과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를 병행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는 전력 시장 가격 변동을 활용한 소비자 참여형 요금제를 도입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인다.

기후부는 26일 오후 제주시 오등동 헤리티크 제주스칼라홀에서 제주도와 공동으로 '2035 제주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을 열고 탄소중립 이행안과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우선 2035년까지 제주에 태양광 3GW와 풍력 2.5GW 등 총 5.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전력계통 전반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화력발전은 단계적으로 줄인다. 설계 수명이 끝나는 한림복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는 내년 말 가동을 멈추고, 제주화력 등 바이오중유 발전기 3기는 2030년 말 순차 폐지된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을 막기 위해 동기조상기 등 계통안정화 설비와 그리드포밍(Grid-Forming) ESS를 도입해 안정성을 검증한다. 계절별로 3~7기씩 운영되던 필수운전 발전기 역시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난방과 온수 등 열 수요와 수송 부문의 전기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누적 20만대를 보급해 열 수요를 전기로 대체한다.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서도록 내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는 제주 공공기관 신축 건물에는 히트펌프 설치를 의무화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부터 제주에서 신규 등록되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 2035년까지 누적 21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전국 첫 신차 100% 전기차 전환 추진에 맞춰 구매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전력 여유 시간대에 충전하는 스마트 충전(V1G)과 차량 배터리를 전력망에 활용하는 양방향 충·방전(V2G) 실증도 진행한다.

단기 실행 과제로 다음 달부터 '탐라는 전기예보'가 시행된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 전력시장 가격(SMP)이 0원 이하로 내려가면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 해당 시간대 전기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이용하는 제주 주택용 고객과 전기차 충전 요금 고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을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녹색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며 "정책 지원과 제도 개편을 병행해 제주의 햇빛과 바람이 도민의 소득이 되고 에너지전환이 생활 속 일상이 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노사발전재단, 취약노동자 보호 방안 모색

'노동권익 콘퍼런스 워크 넥스트' 개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노사발전재단은 26일 이날 서울 모처에서 '2026 노동권익 콘퍼런스 워크 넥스트'(WORK NEXT)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일하는 방식과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재단은 행사 주제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우리의 일은 어떻게 달라질까'로 내걸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의 권리,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부문에서, '일하는 시민의 시대, 권리의 틀을 다시 짜다'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정 교수는 전통적 임금근로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할 법적 체계는 부재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꼽았다.

김창환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장이 '우리의 일, 어떤 변화를 상상해야 하는가' 부문에서, 지난 3년간 취약노동자 원탁회의에서 축적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또 당사자 대화에서는 배달라이더, 방송작가, 번역가, 영상창작프리랜서, 청년활동가 등이 일터에서 겪은 부당한 계약관계, 일감 확보의 불확실성, 업무괴롭힘과 인격침해 등 어려움을 공유했다.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호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명칭을 정하는 공모에서는 '노동권리e음'이 선정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미령 장관, 토마토 과실바이러스 피해농가 점검

지원방안·방역대책 등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토마토 과실바이러스(ToBRFV) 피해 농가를 찾아, 농작물 피해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과 지원방안·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익산 춘포면 소재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피해농가를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피해농가의 의견을 듣고 유관기관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 농장주는, 농장 폐원 시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휴경기간 소득 공백을 고려한 손실 보상을 요청했다.

이에 송 장관은 "피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및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실시할 것"이라며 "수거·폐기·소독 등 방제 관련 비용 일체와 농작물 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산 최소화를 위해 방제를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휴경이 필요하다. 휴경 이후 검사를 거쳐 재정식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 외에, 재해대책 경영 자금 지원 등으로 휴경기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외부인 출입 최소화, 손·자재·도구 소독 등 위생 관리 철저 및 공용물품 사용 금지, 의심 증상 발견 시 즉각 신고 등 대응지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생육상황 및 휴경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장기 수급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부산항만공사, 스마트항만 성과 공유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부스 운영

부산항만공사(BPA)가 '2026년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산항의 스마트항만 구현 성과를 선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모두의 혁신, 든든한 미래, 행복한 국민'을 슬로건으로 지난 25일 개막했다. 이달 27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 제1 전시장에서 사흘간 열린다.

부산항만공사는 '인공지능(AI) 혁신정부 전시구역'에서 'AI 디지털플랫폼으로 구현한 스마트 부산항'을 주제로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주요 전시 내용은 부산항 전 부두별 환적화물 처리 상황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포트아이(Port-i)'와 화물차 운전기사의 컨테이너 항만 반출입 업무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 '올컨e'이며다. 특히 포트아이의 주요 기능인 선박식별시스템(Global AIS) 기능과 AI 기반 선박 입출항 지연 및 환적 연결성 이상 탐지 기능도 소개한다. 선박식별시스템 기능을 통해, 부산 입항 예정 선박의 전 세계 위치를 3D 지구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올컨e를 통한 화물차량 배차 효율 증대,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 물류 효율 개선 성과를 소개하고 화물차 도착 예상시간 예측과 음성 기반 양방향 소통 등 향후 기능 고도화 계획도 함께 선보인다.


'2026년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부산항만공사 전시부스.

/세종=김연세 기자